

우리당 16명 탈당... 범여 대통합 빨라지나

임종석·지병문·강기정 의원 등 초·재선 그룹

대통합추진협의체 추진... 강봉균 “두달내 완성”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16명이 8일 집단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범여권의 대통합이 탄력을 받아 시기가 앞당겨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탈당한 임종석 김부겸 정장선 안영근 의원 등 재선그룹과 우상호 김동철 지병문 강기정 의원 등 ‘처음처럼’, 이목희 강창일 채수찬 우원식 이인영 의원 등 ‘국민 경선준비모임’, 당직을 맡았던 김교훈 사무부총장 조정식 홍보위원장, 최재선 대변인 등은 당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탈당과 함께 14일 이후 일부 의원들이 추가 탈당하면 우리당이 와해될 것으로 보여 대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통합민주당과 대통합 주도권과 방식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초·재선 탈당파들은 제3지대에 자리를 잡은 후 이강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도통합신당 이탈파와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치모임과 함께 대통합 및 국민경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제3지대에서는 잠시만 머물고 대통령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통합 신당 형식의 창당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한가롭게 제3지대에서 머물면서 국민경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 강봉균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물꼬를 트는 전주곡”이라며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2개월 안에 완성해 낼 것”이라고 밝혀 대통합작업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구성할 예정인 신당은 범여권 대통합 주도권을 놓고 오는 15일 출범하는 통합민주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통합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단일화론’과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국민경선론’의 노선 충돌이 예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탈당한 초재선 의원 그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색채를 최소화하고 점차 범여권 대통합이 이슈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2중대 및 기회탈당론의 비판도 점차 회색된다면 제3지대 그룹이 구성하는

신당이 범여권 대통합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15일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과 중도통합신당 측은 추석 연휴 이전 국민경선 완료를 선언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신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는 9월22일 추석 이전에 국민경선을 완료하고 중도개혁세력의 대표 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면서 “통합민주당 출범과 동시에 경선규칙을 마련하고 대선 예비주자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일간 15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어디에 둘지를 트느냐에 따라 초반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며 이후 범여권 대통합을 둘러싼 민심의 향배에 따라 최종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tuim@kwangju.co.kr

고흥에 천경자 전시관 작품 등 50여점... 11월 개관

고흥에 이 지역 출신 원로 여성화가인 천경자 화백 전시관이 들어선다.

고흥군은 8일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62)씨와 고흥종합문화회관내에 천화백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이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45평 규모로 스케치와 미완성 작품, 화구 등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중으로 전시관 인테리어와 작품 설치 등에 들어가 11월 개관할 계획이다.

그러나 천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 대부분은 경기도 양주시에 세워질 대규모 미술관에 소장될 예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당초 천 화백 측은 고향인 고흥군에 미술관 건립 제안을 했으나 군이 재정난과 운영애로 등으로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화백은 주로 ‘여인’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현대 여성 원로화가로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는 거동을 전혀 못하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동구청을 방문, “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현대미술관이나 국립도서관 분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亞 문화전당내 현대미술관 유치”

朴시장, 도심 공동화 해결 위해 국립도서관 분관도 검토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동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현대미술관이나 국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청을 첫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관광상품 1호가 될 것이며, 현대미술관들이 들어서면 동구 인구가 늘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동구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학생회관 부지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총장로 특화거리 부설시공 논란”과 관련 “총장로 2가의 보도 포장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미 시공이 끝난 총장로 1·3가는 미관상 문제를 야기했던 맨홀 덮개 시공 방식을 바꾼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을 동구에 편입시키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힘들다. 내일이라도 정치인들이 합의만 한다면 구간 경계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나라, 왜 광주선 지역공약 안 밝혔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광주정책토론회에서 호남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던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사회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선주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을 벌여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베스코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정책토론회에서 각 대선주자들은 교육·복지분야 정책은 물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열린 1차 대선주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경제 정책 및 공약을 들려싸고 열전을 벌였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대선주자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공약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흥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5명은 이날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상호 토론에서 고교 평준화 문제를 놓고 가장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박 전 대표의 ‘16개 시·도별 고교 평준화 유지 여부 투표’ 공약을 놓고 이 전 시장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16개 시·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중 40%가 자립형 사립고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공격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질문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보육비 민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모든 영아의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받아 넘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산 대선후보 2차토론회

영남 핵심 현안 공약 거론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광역 시·도에 일임하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시장은 상호토론 시간에 박 전 대표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교육”이라며 박 전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질문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보육비 민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모든 영아의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받아 넘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日日만평

- 김종우



美 쇠고기 수입 검역 재개

농림부 “美 단순한 실수” 수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보류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8일 미국측이 “미미 확인된 2건을 제외하고 내수용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알려온 후 미국산 쇠고기に対する 검역증 발급 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면 6월 1일 이전 선적분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후 해당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측에 조회하고 확인을 거친 뒤 검역증명서를 발급 방침이다.

미국측은 지난 7일 리처드 레이몬드 농업차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수출된 물량 가운데 한 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

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미국 농무부는 카길과 타이슨 두 회사는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 측의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역원은 이번 사건과 두업체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검역 당국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64t이 내수용임이 확인된 직후 구체적 사실 규명과 믿을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이번 수출과 관련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건강 이상설

日誌 보도... 獨 의사 불러 심장수술

고(故) 김일성 주석의 사인이었다는 점에서 가족력과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줘 북한체제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시사지 ‘주간현대’는 김 위원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의사들을 불러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5월초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모두 23회로, 작년 같은 기간의 42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특히 5월초 이후엔 거의 한달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이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심근경색은 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사인이었다는 점에서 가족력과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줘 북한체제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기간이 채 한달이 안된다는 점은 비교적 가능하다고 보인다.

지난달 29일 MSNBN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정보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뇨와 심장,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죽음에 임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변호사 전

정구씨가 “세부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나온 주택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주택과 무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현행 종부세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온에 따라 정부의 과세시책에도 단행이 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과 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 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